

■ 광주시장·전남지사, 광주시·전남도교육감 후보 마지막 호소



한나라당 정용화 광주시장 후보가 1일 오후 광주시 동구 충장로에서 유세를 하며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적 투표를 호소하고 있다. /N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강운태 광주시장 후보를 비롯한 민주당 광주시 지역 지방선거 후보들이 1일 오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필승을 다짐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장일섭 광주시장 후보 등 민주노동당 지방선거 후보 28명은 1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노당을 선택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장 후보

변화의 대열에 시민 동참해주길

정용화 (한나라당) 선거운동 기간 변화를 바라는 광주시민의 뜨거운 열망을 확인했다. 광주는 이미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었다. 잘사는 광주, 당당한 광주, 세계의 광주를 향한 광주시민의 의지와 열정은 감동 그 자체였다. 만나는 시민마다 '이번에는 바뀐다. 반드시 바뀐다'며 용기를 주고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광주를 열린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변화를 바라는 시민과 함께 하고자 광주시장 선거에 나선 후보로서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었다. 광주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시민 모두 이러한 대열에 동참해주길 바란다.



여러분 한표가 정권 재창출 기반

강운태 (민주당)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꼭 민주당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과정에서 드러난 변화와 쇄신의 목소리를 교훈 삼아 앞으로 광주 시민을 섬기는 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다. 혼신의 힘을 다해 광주의 밝은 미래를 활짝 열어나갈 것이다. 오만과 독선에 찬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고 상대적으로 잠시 분열됐던 범 민주세력들의 대통합을 이루는 방향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광주시민의 소중한 한 표를 전폭적으로 믿어준다면 이를 초석으로 정권 재창출의 기반을 확고히 다질 수 있다.



광주시교육감 후보

깨끗한 엄마교육감 되겠다

고영을 누구보다 깨끗하고 정직한 엄마교육감이 되겠다. 2일은 부정과 비리, 교원 쫓겨기를 뽑아 버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 후보가 교육개혁을 시작하는 날이다. 엄마와 같은 마음으로 교육감 직책을 맡고 공교육 활성화와 사교육비 절감에 나서겠다. 특히 유치원 때부터 교육비의 격차가 큰 공·사립으로 나뉘는 등 교육 불평등이 심각하다. 유치원 의무교육을 실현해 이를 바로잡겠다. 또 교원과 학부모·학생 모두가 만족하는 선진 광주의 교육을 실현하겠다. 광주 엄마와 여성들은 물론 모든 유권자의 지지를 당부한다.



현장 교육 전문가에게 맡겨달라

김영수 유례없는 복잡한 선거로 유권자가 참다운 선량을 가려 뽑기가 어렵다. 하지만 교육감은 백년대계를 이어갈 후손을 교육하고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막중한 자리다. 교육감은 도덕적으로 청백하고 깨끗한 사교력, 추진력을 겸비한 인사가 돼 광주의 패러다임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이제 광주교육도 변화해야 할 시점이다. 현장 교육의 전문가에게 교육감을 맡겨달라. 세계를 대표하는 광주 교육을 만들어 내겠다. 무상급식 실현 등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광주교육의 선봉에 서겠다.



퇴행정치 극복할 민노당 선택을

장원섭 (민노당) 이번 지방선거는 나라를 망치는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을 심판하고, 호남을 썩게 한 민주당을 극복하는 중대한 선거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을 심판하고 민주당의 퇴행정치를 극복할 대안정당으로 민노당을 선택해달라. 그러면 자신의 이익만 좇는 정치, 불의와 타협하는 정치, 오만하고 나태한 정치는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땀 흘려 일하는 정치, 정직하고 진실한 정치, 겸손하고 부지런한 정치로 시민의 이익을 지켜나가겠다. 민주노동당과 함께 동네를 바꾸고 광주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길에 함께 해달라.



개발 아닌 복지 선택해 주세요

윤난실 (진보신당) 선거운동을 시작한 이래 정책 선거를 주도해왔다고 자부한다. 선거운동 기간 '새로운 진보정치'를 위해 헌신해 왔다. 광주시민을 만나며 많은 격려와 지지를 받았다. 기호 7번 윤난실 후보에게 찍는 한 표는 개발이 아닌 복지를 선택하는 한 표이다. 또한 차별이 아닌 평등을 선택하는 한 표이다. 광주시장은 윤난실, 정당투표는 기호 7번 진보 신당을 찍어줄수록 대한민국의 복지국가 실현은 한걸음 빨라질 것이다. 복지국가와 복지 광주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이번에는 꼭 진보 신당 후보를 찍어줘야 한다.



MB정부 차별 교육 심판합시다

장취국 광주시민의 정의로운 힘과 저항정신을 믿으며 교육비리로 점철된 광주교육을 시민의 힘으로 심판하고 바꾸는 일만 남았다. 우리의 아이들을 경쟁과 차별 교육으로 내몰고 있는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에 당당하게 '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교육행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해방 이후 65년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던 광주의 교육 권력이 교육민주화를 바라는 광주시민의 힘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이다. 무상교육·무상의무 교육 실현 등 제가 내놓은 공약은 꼭 지켜내겠다.



시민과 함께 명품 교육도시 만들자

이정재 광주시교육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지난 4개월 동안 40여년 교육계 외곽 인생을 걸어온 삶을 결코 후회 없이 최선을 다했다. 그 결과 바닷바람이 확실하게 불고 있음을 몸으로 느꼈다. 비리와 무사안일도 물론 개혁해야 하지만, 학교 현장이 이념교육과 정치투쟁의 수단이 돼서도 안 된다는 대다수 시민의 뜻도 확실히 알았다. 광주교육의 변화를 열망하는 유권자의 뜻을 받들어 반드시 변화와 개혁을 불러 일으키겠다.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 시민과 함께 광주를 명품 교육도시로 만들어 내겠다.



광주시민 꿈 이루도록 해달라

정찬용 (참여당) 선거운동 기간 중 많은 시민들을 만났다. 마주잡은 손길로, 마주치는 눈빛으로 따뜻한 격려해줘 대단히 감사했다. 또한, 정말 행복한 시기였다. 그런데 만나는 시민마다 이번에는 (광주 정치를) 꼭 바꿔야 한다는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광주의 미래와 민주주의의 앞날을 결정하는 중요한 날인만큼 오늘 시민들이 꼭 투표에 참여해 꿈을 이뤄냈으면 한다. 광주시민의 꿈을 정찬용이 이루도록 해달라. 광주시민과 함께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고 2012년 정권교체의 기틀을 마련하는 일 잘 하는 시장이 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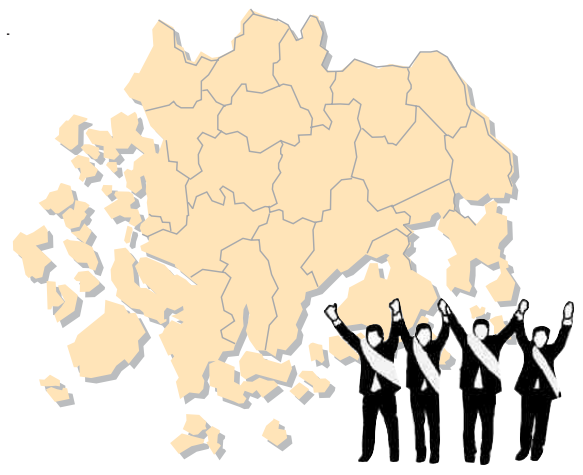
시민들 훌륭한 선택 믿는다

조흥규 (평민당) 광주시민들이 그동안 소음공해에 시달린 데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을 하고 싶다. 하늘에서는 어느 도시에도 없는 공군 전투기가 시끄럽게 하고, 땅에서는 어떤 후보인지도 모른 로고송이 온 시가지들을 뒤덮었다. 후보 선거가 아닌 차량 선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선거당국은 이러한 점을 고쳐야 한다. 어쨌든 선거가 모두 끝나 소음공해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데 대해 시민들도 안도의 한숨을 쉴 것으로 보인다. 이제 광주시민의 훌륭한 선택만이 남아있다. 훌륭한 선택을 할 것으로 믿는다.



진실성 갖춘 후보 선택해달라

안순일 수능 성적 전국 1위 등 '실력' 광주의 위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투표참여를 부탁드린다. 또한 이번 선거과정에서 일부 후보들이 마치 광주교육이 비리 집단이고, 교육을 망쳐버린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데 이는 광주학생은 물론 민주·평화·인권도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 모두를 모독한 것이나 다름없는 행위다.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 대신 사과드린다. 실천 가능성이 없는 공약으로 현혹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광주교육의 미래를 위해 누가 진실성을 갖춘 교육감 후보인가를 현명하게 판단해 줬으면 한다.



전남지사 후보

지역발전 고려 표 나눠 주세요

김대식 (한나라당) 지금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낙후했다. 민주당 정부 10년 동안 호남은 변하지 않았다. 이제 전남도민을 대신해 이명박 정부와 긴밀히 이야기하고 협조를 당부할 사람이 필요하다. 민주당 후보에게 70~80%의 표를 몰아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도지사도 뽑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역발전을 생각해 20~30%의 표를 나누어 주길 간절히 호소한다. 3개월여 동안 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과 애정을 확인했다. 당락에 관계없이 지역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은 꼭 지키겠다.



낙후된 전남의 운명 바꾸겠다

박준영 (민주당) 지난 2개월여 동안 전남 22개 시·군 구석구석을 돌아보니 '낙후된 전남의 운명'을 계속 바꾸어 가려는 것이 민심이었다. 이번 선거에서 도민 여러분의 재신임을 얻는다면 전남의 운명을 바꾸는 노력에 모든 것을 바치겠다. 특히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민주당에 대한 애정과 지지는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지켜 온 토대였다. 민주당에 압도적 지지를 해주지만 오는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다. 반드시 투표장에 나와 전남의 미래를 희망과 번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



전남도교육감 후보

교육민주화 꼭 이뤄내겠다

김경택 전남교육이 오늘처럼 어렵게 된 것은 수도권을 동경하고 의존하는 교육정책이 가장 큰 원인이다. 도민들에게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하고, 홈페이지에 민원인 코너를 개설해 실시간으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민주주의적 교육감 후보를 지지해 달라. 진보와 보수 사이를 오가면서 '흑묘백묘론'을 제시하는 등 정체성 논란을 빚고 있는 특정후보가 아닌, 전 시·군 교육장 공모제·여수 제2교육청 신설 등 현실적인 공약을 통해 교육민주화를 이룩할 저를 지지해줄 것으로 믿고 있다. 열심히 하겠다.



새로운 전남교육 시작되고 있다

장만재 도민의 절절한 염원이 모아지고 있다. 전남교육을 바꾸고 새 희망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 분 한 분의 투표 참여가 소중하다. 어렵게 치러지고 있는 직선 교육감 선거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도민에게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 새로운 전남교육은 이미 시작되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내일, 도민과 함께 전남교육의 희망을 만들겠다. 전남교육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준 다른 후보에게도 감사 말씀을 전한다. 무상급식과 무상의무교육 등 그동안 제시한 공약도 꼭 지켜내겠다.



노동자·농민·서민들 꿈 현실로

박용두 (민노당) 민주노동당은 야권연대에 최선을 다했지만 호남지역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작은 기득권에 눈이 멀어 야권연대를 과반 했다. 민노당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심판하는 것을 이번 선거의 목표로 설정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도민의 민심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확인했다. 더 나아가 지역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올바른 지방자치체를 위해 어떤 책임이 있는지를 더욱 확인했다. 민노당이 대안정당으로 도민의 선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노동자·농민·서민들이 꿈과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 새로운 민생정치·생활정치를 실현할 것이다.



호남 민심 대변할 평민당 선택을

김경재 (평민당) 호남 민심을 대변해 줄 민주당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제 색깔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심히 유감스러웠다. 그래서 김대중 정신을 계승하고 민주당의 대안을 찾고자 평화민주당을 재건하고 도지사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하지만, 선거준비기간이 부족했고, 기존 정당의 견제와 언론의 무관심 등으로 매우 힘든 선거운동을 해왔다. 짧은 선거운동기간이었지만, 전남 민심은 바다에서부터 민주당에 대한 기존의 지지가 풍요로 있었음을 느꼈다. 전남도민이 꼼꼼히 살펴서 현명한 선택을 할 것으로 믿는다. 커다란 성원 부탁한다.



전남을 전국 제일 교육지역으로

곽영표 40여년 교편생활과 학교 경영 등을 해왔으며 도민의 후원으로 산적한 교육 난제를 풀기 위해 출마해 뛰었다. 전남교육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교육감의 경륜과 품성, 실천의지가 중요하다. 호남지역 전문가 최호 필드벨을 올린 실천의지, 특심으로 전남교육을 전국 제일의 교육모범 지역으로 만들겠다. 또 일부 교육감 후보들이 주장하는 한정된 교육 예산을 고려하지 않고, '일단 당선되고 보자'는 식의 무상급식 전면 실시 등은 반대한다. 소외계층과 농산어촌 학생부터 무상급식을 하겠다. 지지해 달라.



아이들 미래 위해 40년 경륜 선택을

김정환 전남교육계에 40여년간 몸담으면서 전남교육의 발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며 무엇이 문제인지를 잘 알고 있다. 안정적인 전남교육을 이끌고 갈 후보자를 도민들이 현명하게 선택해줄 것으로 믿는다. 전남교육감 선거는 특정 정치집단의 개입으로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됐다. 정치적 구호·선동에 현혹되지 말고, 내 아이와 우리 이웃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해 주길 바란다. 혼신의 힘을 다해 전남교육 선진화를 꼭 이루겠다. 제 인생의 마지막 꿈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린다.

